

마태복음 1:23의 ‘동정녀’와 ‘처녀’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이환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23이다. 한국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글성경 『개역개정』(2005)은 ‘처녀’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용 성경과 사도신경이 다르다. 그렇다면 ‘동정녀’라는 말과 ‘처녀’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이 논문은 이들 용어의 유래를 추적하고자 한다. 특별히 중국어성경과 일어 성서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1:23은 물론 이사야 7:14의 인용이다. 같은 본문이지만 각 번역 성경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점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1. 한글성경의 ‘동정녀’와 ‘처녀’

2005년에 나온 한글성경 『개역개정 제4판』은 마태복음 1:23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¹⁾

*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peninim@hotmail.com.

1) 이하에 인용한 성경본문은 모두 읽기 편하도록 행갈이를 하여 인용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은 이사야 7:14의 인용이지만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칠십인역의 인용이다.²⁾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리스어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를 우리말 성경이 ‘처녀’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한글 최초의 공인번역 『구약 신약』(신약전서, 1906)은 이 용어를 ‘동정녀’로 옮겼다.

불지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흐리니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흐리라

흐시니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해방이후에 나온 『공동』(1977)과 『새번역』(2004) 그리고 한국 가톨릭교회가 펴낸 『성경』(2005)도 ‘동정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동정녀’라는 용어를 한글 『성경개역』(1938)은 ‘처녀’로 바꾸어 읽는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달을 나흘 것이요

그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섯스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이 용어는 이미 게일(James S. Gale, 奇一)과 이원모 장로가 1925년에 함께 펴낸 『신역신구약전서』(新譯新舊約全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

處女가 孕胎하여 아들을 나코

일홈을 임마누엘이라 흐리라(사七〇十四) 흐니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사八〇八,九) 흐는 뜻이러라

여기서 말할 것은 이 역본부터 ‘처녀’(處女)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2) Babara Aland, et al., hrsg.,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3의 주를 보라.

3) 『新譯新舊約全書』, 奇一, 李源謨 역 (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이 성경은 띄어쓰기는 물론 행갈이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역본이 특이한 점은 구약 인용을 이렇게 본문 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다. 한글 『구약 신약』(1906)과 한글 『성경개역』(1938)이 구약 인용을 난하주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점이다. 지금 한글성경은 ‘동정녀’라는 말과 ‘처녀’라는 말을 다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1894년 당시 조선에 들어온 영국성공회가 신약을 요약하여 펴낸 『조만민광』(照萬民光)이 ‘동정녀’(동정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책은, 본디 영어로 쓴 것⁴⁾을 한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펴낸 책⁵⁾이다. ‘童貞女’(동정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耶蘇誕生 예수-탄생하신거시라’이라는 부분을 읽어보기로 한다.

主之使者見夢曰大衛之裔要習其取爾妻瑪利亞以歸勿疑蓋所孕者感於聖神也被必生子可名曰 耶蘇以將救其民於罪惡中如是主托先知所言應矣曰童貞女孕而生子人稱其名以瑪累臬譯卽 天主偕我焉

주의 스자- 텃신이라 꿈에 보여 곶으샤디 다위의 후예 요슈아 네 안히 마리아를 취하야 씨 도라오고 의심치 말나 대개 잉티하신 바 자는 성신을 감동하심이라 더- 반드시 아들을 나흐리니 가히 일흠하야 곶으딕 예수-라 하라 씨 장춧 그 빅성을 죄악 가온대셔 구완하시리라 이러케 된거슨 주- 선지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니 넷적에 성신을 감동하야 텃주의 뜻술 미리 알고 사름의게 전하시는 성인이니라) 의게 부탁하야 말씀하신 바를 응하엿시니 곶으샤디 동정녀- 잉티하야 아들을 나흐매 사름이 그 일흠을 이마뉴엘이라 닐크를 거시니 번역하면 곶 텃주- 우리와 흠씩 하심이니라⁶⁾

영어원본을 보면 위의 인용이 마태복음 1:20-23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한문성경과 똑같지 않다. 또한 한글번역도 한글성경과 똑같은 번역이 없다. 따라서 축약한 것이지만 독자적인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이마뉴엘’을 ‘以瑪累臬’(이마뉴엘)로 음역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어떤 한문성경이나 중문성경도 이러한 음역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글번역이 ‘이마뉴엘’로 음역한 것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에 들어온 영국성공회는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동정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새악씨’라는 토박이말을 사용하는 성경이 있다. 1919년에 나온 『펜웁역』(신약)이다.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의 『영한사전』(*English-Corean*

4) The Missionaries of the Church of England in Corea, ed., *Lumen Ad Revelationem Gentium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Seoul: The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5).

5) 트롤로프(조마가: Mark Napier Trollope), 『照萬民光』(漢陽: 漢陽駱洞英國聖教會, 1894) (조만민광).

6) Ibid., 6-7. 한글 번역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읽기 편하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였다. 고유명사의 밑줄은 원문 그대로 표시하였다. ‘천주’나 ‘예수’와 같은 말 앞에는 앞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했다. 이 책의 영어 원본에는 성경구절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 번역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Dictionary)에는 ‘virgin’의 대응어로 ‘처녀’(처녀)나 ‘규슈’(규수)와 함께 ‘새악씨’(새시)를 언급한다.⁷⁾ 이렇게 당시 통용되던 용어를 채용하여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녀 (『예수성교전서』, 이수정 『신약성서마태전』, 『구역 신약』[1900, 1904], 『사사성경』, 『신역신구약전서』, 『성경개역』, 『개역』, 『개역개정』)
 동정녀 (『조만민광』, 『구역 신약』[1906], 『공동』, 『새번역』, 『성경』)
 새악씨 (『펜워역』)
 아가씨 (『새즈른성경』)

『예수성교전서』(1887)를 펴낸 로스와 맥킨타이어 번역 팀은 한문성경 『대표본 신약』(1852)을 많이 참조하였다. 따라서 ‘처녀’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대표본 신약』(1852)의 영향으로 『예수성교전서』(1887)는 ‘처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이수정이 일본에서 『신약성서마태전』(新約聖書馬太傳, 1884)을 펴내면서 그가 번역 대본으로 삼은 성경은 한문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이었다.⁸⁾ 이 한문성경이 ‘처녀’(處女)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수정은 당연히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에 들어와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이들 첫 복음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번역해낸 한글성경 『구역』의 신약(1900)과 그 교정본(1904)은 ‘처녀’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그런데 갑자기 1906년에 마지막 교정본을 내면서 ‘처녀’를 ‘동정녀’로 바꾸었다. 아마도 당시 사도신경이 번역되어 읽었을 텐데 그 영향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러한 사정이 ‘동정녀’라는 용어가 1806년 가톨릭교회의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⁹⁾ 아니면 조선의 영국성공회가 1894년에 펴낸 『조만민광』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童貞女’(동정녀)라는 한자말과 ‘동정녀’라는 한글 번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 한문성경과 중문성경의 ‘동녀’와 ‘처녀’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 큰 영향을 미친 한문성경과 중문성경¹⁰⁾은 그 사

7)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8) 이수정역의 번역 성격에 대하여, 특별히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에 대한 분석으로 廣剛(히로 다카시), “李樹廷譯『마가전』의 底本과 翻譯文의 性格”, 『국어사연구』 4 (2004), 173-233을 보라. 특히 이수정역의 저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99-208을 보라.

9) 물론 조선 가톨릭교회가 1910년에 펴낸 『四史聖經(스스성경)』은 ‘처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0) 여기서 한문성경(漢文聖經)은 맹자나 중용의 문체와 같은 문체(경서체)로 번역한 성경

정이 어떨까? 먼저 1919년에 나온 중문성경 『화합본』(和合本)은 이렇게 번역한다.

必有童女,懷孕生子
人要稱他的名爲以馬內利
(以馬內利翻出來,就是上帝與我們同在)

동녀가 있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자면 곧 ‘상제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다)

‘동녀’(童女)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¹⁾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 성경의 개정판(2010)을 냈는데 이 부분의 번역이 똑같다. 다만 “上帝與我們同在”(상제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에만 겹 따옴표를 넣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화합본』(1919)에 큰 영향을 미친 북경어 성경이 있다. 1872년에 나온 『북경관화위원회역』이라는 신약이다. 간략하게 『북경관화역(北京官話譯)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경어, 곧 지금의 중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글말체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한다.

童女將要懷孕生子
人將稱他的名爲以馬內利
翻出來,就是 神在我們中間的意思

동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할 것이다
번역하자면 곧 ‘신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다

을 가리킨다. 중문성경(中文聖經)은 관화(官話)나 백화문(白話文) 또는 국어(國語)나 보통화(普通話)라고도 부르는 근대와 현대의 중국어 문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한다.

11) 『화합본』(1919)에서 ‘동녀’(童女)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팔호 속은 각각 ‘동녀’(童女)로 번역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이다. 구약의 경우 출 2:8(עלמה); 신 32:25(בתולה); 왕상 1:3(נערה); 시 68:25(עלמות); 아 1:3(עלמות); 6:8(עלמות); 사 7:14(עלמה); 23:4(בתולות); 율 3:3([4:3], ילדה)이다. 신약의 경우 마 1:23(παρθένος); 25:1(παρθένοι), 7(παρθένοι), 11(παρθένοι); 눅 1:27(παρθένος); 고후 11:2(παρθένος)이다. 『经文汇编』(上海: 中国基督教协会, 1993), 645를 참조하라. 신약의 경우 일관되게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를 ‘동녀’(童女)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구약의 경우 ‘알마(עלמה)’와 ‘나아라(נערה)’와 심지어 ‘알다(ילדה)’도 ‘동녀’(童女)라고 옮겼다. 물론 ‘베툴라(בתולה)’를 ‘동녀’(童女)로 옮긴 경우도 두 번이 나온다.

거의 같다. 다만 ‘장’(將)이나 ‘요’(要)와 같은 조동사만 다를 뿐이다. 1910년대 북경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동녀’(童女)라는 용어이다. 이미 1870년대부터 이 용어를 입말체 중문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입말체로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1856년에 남경어로 번역한 신약성경이다. 『남경관화역』(南京官話譯)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옮긴다.

有個閨女,將懷身孕,生一箇兒子
名字叫做以馬內利
翻譯出來就是上帝和我們

한 규녀가 임신하여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번역하자면 곧 ‘상제가 우리와 함께’이다

특이하게도 『남경관화역』(1856)은 ‘규녀’(閨女)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방(閨房)을 뜻하는 ‘규’(閨) 자에 ‘여’(女) 자를 붙여 ‘내실 여자’나 ‘규방 여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¹²⁾ 『남경관화역』(1856)은 신약만 있는 역본으로 사실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 『대표본』(代表本)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본』은 신약이 1852년에 나오고 구약이 1854년에 나온다. 그렇다면 『대표본 신약』(1852)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將有處女懷孕生子
人稱其名以馬內利,譯卽上帝偕我焉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한다
번역하면 곧 ‘상제가 우리와 함께’이다

‘처녀’(處女)라는 용어가 이렇게 19세기 중반 중국 청나라 시절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표본 신약』(1852)과 번역 성격이 많이 다른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이렇게 옮긴다.

12) 참고로 현대 중국어 사전은 이 용어를 ‘소녀’(girl)나 ‘처녀’(maiden)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申蕙 责任编辑, 『外研社 精编 英汉汉英词典』, 大字本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 (FLTRP Concise English-Chinese Chinese-English Dictionary), 漢永詞典 部分, 213 참조.

視哉將有處女懷孕而生子
人必稱其名曰以馬內利,譯卽神偕我儕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르기를 임마누엘이라고 칭할 것이다
번역하면 곧 ‘신이 우리와 함께’이다

문자적 번역으로 유명한 이 성경 또한 ‘처녀’(處女)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쉐레쉐브스키 주교(Bishop S. I. J. Schereshevsky, 施約瑟)가 번역한 쉬운 문리체 성경(1902)은 어떨까? 『시주교역』(施主教譯)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경의 신약은 독일인 학자 델리취(F. Delitzsch)가 성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신약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童女將懷孕生子
人將稱其名以瑪內利,譯卽上帝偕我焉

동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할 것이다
번역하면 곧 ‘상제가 우리와 함께’이다

쉬운 문리체(淺文理)로 번역한 이 성경은 ‘동녀’(童女)로 읽는다. 『북경관화역 신약』(1872)의 영향으로 보인다. 쉐레쉐브스키 자신이 『북경관화역 신약』을 펴내기 위해 조직된 북경관화위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초의 한문성경 『모리슨역 신약』(1814)을 읽어 보기로 하자.

却童身者將受孕而生子
將名之以馬奴耳,卽是譯言,神偕我們¹³⁾

그런데 어린 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마누엘¹⁴⁾이라고 이름붙일 것이다
곧 이는 번역하면 ‘신이 우리와 함께’이다

13) 『모리슨역』은 19세기 초반에 나온 문리체(文理體)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우리’라는 뜻의 ‘위먼’(我們)은 문언문(文言文) 표현이 아니라 현대 중국어이다. 문리체로 번역된 『대표본』(1852, 1854)이나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처럼 ‘아’(我)나 ‘아제’(我儕)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성격을 달리 규정해야 할 것이다.

14)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마누엘’로 발음하는 것은 이 성경이 영어성경 - 아마도 KJV - 을 많이 참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리슨역 신약』(1814)은 특이하게 ‘동신자’(童身者)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지 ‘어린 몸’이라는 뜻이다.¹⁵⁾ 성 구분이 없는 용어이다. 최초의 한문성경이 이렇게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¹⁶⁾ 그런데 『마쉬만-라싸르역』(1822)이라고 부르는 한문성경은 『모리슨역 신약』(1814)과 똑같이 번역한다.¹⁷⁾ 『마쉬만-라싸르역』(1822)이 『모리슨역 신약』(1814)을 많이 참조했다고 하는데¹⁸⁾ 그 증거가 위의 구절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문성경의 번역어는 다양하지만 『대표본 신약』(1852) 이래로 ‘처녀’(處女)나 ‘동녀’(童女)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문성경과 중문성경의 번역어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열해보자.

童身者 (『모리슨역』, 『마쉬만-라싸르역』)

處女 (『대표본』, 『브리지만-컬벗슨역』)

閨女 (『남경관화역』)

童女 (『북경관화역』, 『양격비역』¹⁹⁾, 『시주교역』, 『화합본』, 『여진중역』, 『당대복음』, 『신역본』, 『현대중문역본수정판』)

貞女 (『프란치스코회 성경』)

童貞女 (『당대역본』)

15) 이 용어의 뜻을 알려주신 무불달 오세종 목사님과 김상기 박사께 감사드린다. 모리슨(Robert Morrison)은 자신이 펴낸 『화영사전』(華英詞典)에서 ‘동’(童) 자를 이렇게 풀이한다.

童 T'Hung

One who is single and has no house of his own. A boy, a lad, a young girl, a virgin. Chaste, Sheep and cattle without horns. Hills without trees. Name of a place. A surname. Tung nëen she heō 童年嗜學 in his boyish years was fond of learning, said of Lew-ko-he-jin 劉軻希仁 an eminent writer of the Tang dynasty, about A. D. 740. She tung tsze how ting 使童子後庭 to have intercourse with a catamite. Ke tung 奇童 an extraordinary lad, said of one who at seven years of age had acquired much learning. Chung tung 命童 a beloved boy; a catamite.

馬禮遜(Robert Morrison), 『華英字典』 2, (影印版), 馬禮遜文集(上海: 大象出版社, 2007; 원출판년 1822)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820을 보라. 여기서 모리슨은 ‘동’(童) 자가 ‘소년’이나 ‘소녀’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처녀’라는 뜻도 이 말 속에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16) 정약전이 200여 년 전에 쓴 『主教要旨』(하편 七六)에 ‘성모동신(聖母童身)’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가톨릭교회의 전통에서 ‘동신’(童身)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閔德孝 編, 『主教要旨』(京城: 京城府明治町天主教會, 1932 [昭和7年]), 하편 67.

17) 『마쉬만-라싸르역』에 대해서는, 황예렘, “인도에서 이루어진 한문 성서의 번역·출판 배경과 경위”, 『성경원문연구』 38 (2016), 159-186을 참고할 수 있다.

18) Hubert W. Spillett, ed., *A Catalogue of Scriptures in the Language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75), 6.

19) 양격비(楊格非)는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이라는 선교사의 중국어 이름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리피스 존 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885년에 나온 신약성경이다.

‘동녀’(童女)라는 용어가 압도적이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서서 나온 『화합본』(1919)과 『여진중역』(呂振中譯, 1946)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당대복음』(當代福音, 1979)과 『현대중문역본수정판』(1995)과 『신역본』(新譯本, 2005)이 모두 ‘동녀’(童女)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따라서 중문성경에서는 ‘동녀’(童女)라는 용어로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대역본』(2011)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정녀’(童貞女)로 번역한다.

必有童貞女懷孕生子
 祂的名字要叫以馬內利
 意思是 ‘上帝與我們同在’

동정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뜻은 ‘상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다

이 성경은 2011년에 완역된 성경이다. 중국에서 나온 성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으로 ‘동정녀’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아마도 중문으로 나온 성경 가운데 이 용어를 선택한 유일한 성경인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1:23)이 이사야서(7:14)의 인용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사야서의 히브리어는 ‘알마(אִלְמָא)’이다.²⁰⁾ 이 용어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에서 세 낱말로 번역한다.²¹⁾ 이 가운데에서 신약 마태복음이 채택한 용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이다. 히브리어 ‘알마(אִלְמָא)’를 번역한 한문성경과 중문성경의 이사야서 번역어는 역본별로 다음과 같다.

童女 (『모리슨역』, 『브리지만-컬벳슨역』, 『화합본』, 『신역본』)
 處女 (『마쉬만-라샤르역』, 『대표본』, 『북경관화역 구약』, 『시주교역』)

20) 사 7:14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환진 역주,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엮어 읽는 이사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5-21을 참조하라.

21) ‘젊은 여자, 소녀’(young woman, girl)라는 뜻의 ‘네아니스(νεῆνις)’와 ‘젊음, 젊은 시절’(state of being young, a period in one's life when one is young)이라는 뜻의 ‘네오테스(νεότης)’ 그리고 ‘젊은 여자’(young woman)라는 뜻의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이다. Takamitsu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111과 Takamitsu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Chiefly of the Pentateuch and the Twelve Prophets* (Louvain; Paris; Dudley, MA: Peeters, 2002), 385-386을 보라.

闺女 (= 閨女) (『현대중문역본수정판』)

贞女 (= 貞女) (『프란치스코회 성경』)

童贞女 (= 童貞女) (『당대역본』)²²⁾

『모리슨역 신약』(1814)과 『마쉬만-라싸르역』(1822)의 경우 신약에서는 ‘동신자’(童身者)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구약의 경우 『모리슨역』(1823)은 ‘동녀’(童女)로, 『마쉬만-라싸르역』(1822)은 ‘처녀’(處女)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문성경과 중문성경은 대부분 ‘동녀’(童女) 아니면 ‘처녀’(處女)로 옮겼다.²³⁾ 그런데 중문성경 『화합본』(1919)은 두 용어 가운데 ‘처녀’(處女)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물론 히브리어 ‘베틀라(בתולה)’를 ‘처녀’(處女)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²⁴⁾ 때로는 ‘나아라(נערה)’를 ‘처녀’(處女)로 옮기기도 한다.²⁵⁾

그런데 『사고성경』(思高聖經)이라고도 부르는 중국 가톨릭교회의 『프란체스코회 성경』(1968)은 ‘정녀’(貞女)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²⁶⁾ 이 ‘정녀’라는 용어는 중국 가톨릭교회의 용어인 듯하다.²⁷⁾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22) 난하주에는 그냥 ‘女子’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23) 申蕙 责任编辑, 『外研社 精编 英汉汉英词典』은 ‘처녀’(处女, chǔnǚ)와 ‘동녀’(童女, tóngnǚ)를 英汉词典 部分 85, 637에서 ‘virgin, maiden’이라는 같은 말로 설명한다.

24) 출 22:16, 17; 레 21:3, 14; 사 19:24; 삼하 13:2; 대하 36:17; 욥 31:1; 시 78:63; 148:12; 사 47:1; 62:5; 렘 2:32; 31:13; 51:22; 애 1:4, 18; 2:10, 21; 5:11; 겔 9:6; 44:22; 욥 1:8; 암 8:13; 숙 9:17. 레 21:13; 사 11:37-39; 겔 23:3, 8에서는 ‘베틀림(בתולים)’을 ‘처녀’(處女)로 옮긴다. 왕상 1:2에서는 ‘나아라 베틀라(בתולה נערה)’를 ‘처녀 한 사람’(一個處女)으로 번역하고 예 2:2-3에서는 같은 문장을 ‘아름다운 처녀’(美貌的處女)로 옮긴다. 따라서 『화합본』(1919)의 ‘처녀’는 ‘베틀라(בתולה)’의 대응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를 행 21:9(복수)와 고전 7:28(단수)에서 ‘처녀’(處女)로 번역한다.

25) 창 24:16; 신 22:19, 23, 28. 『화합본』(1919)은 신 22:23, 28의 ‘나아라 베틀라(בתולה נערה)’를 신 22:23에서 ‘처녀가 성인 남자와 약혼했을 경우’(若有處女已經許配丈夫)로, 신 22:28에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沒有許配人的處女)로 옮긴다. 사 21:12의 ‘나아라 베틀라(בתולה נערה)’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未嫁的處女)로 번역한다. 그러나 신 22:21, 25-26, 29에서는 ‘나아라(נערה)’를 그냥 ‘남자’(男子, איש)에 대비되는 ‘여자’(女子)로 옮긴다. 한편, 신 22:22에서는 ‘이쉬(איש)’와 ‘잇샤(אשה)’에 대해서 ‘인’(人, איש)과 ‘부인’(婦人, אשה) 그리고 ‘간부’(姦夫, איש)와 ‘음부’(淫婦, אשה)로 각각 번역한다. 이렇게 『화합본』(1919)은 일관성을 잃고 이들 법적인 용어를 번역한다.

26) 『시경』의 국풍(國風) 편에 ‘정녀’(靜女)라는 시가 있다. 그러나 말만 같을 뿐 그 뜻은 ‘얌전한 아가씨’라는 뜻이다. 이 시에 ‘정녀기주’(靜女其姝)와 ‘정녀기련’(靜女其變)이라는 표현에 이 말이 등장한다. 金學主 譯著,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서울: 明文堂, 2002), 125를 참조하라.

27) 申蕙 责任编辑, 『外研社 精编 英汉汉英词典』, 818은 ‘virgin’ 항목에서 이 용어를 ‘처녀’(处女)와 ‘정녀’(貞女)라고 설명하고 특별히 ‘정녀’(貞女)를 종교적인 용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에서 ‘virginity’는 ‘동정’(童貞)과 ‘순결’(純潔)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그러나 ‘동정녀’(童貞女)라는 설명은 없다. 참고로 라틴어 표현 ‘Virgo’는 별자리로서

는 그의 책 『천주실의』(1603)에서 이미 이 용어를 사용한다.²⁸⁾ 특이한 것은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시리아 동방 교회(페르시아교회), 곧 경교(景敎)는 『대진경교중국유행비』를 보면 ‘실녀’(室女)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²⁹⁾ 8세기의 비문이다. 그런데 홍콩성경공회가 펴낸 『현대중문역본수정판』(1995)은 ‘규녀’(闺女)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이한 것은 쉐레쉐브스키 주교가 버든(J. S. Burdon)과 함께 번역하여 1872년에 펴낸 중국 성공회의 기도문이다.³⁰⁾ 이 책은, 본디 영국에서 나온 The Common Prayer of the Church of England를 한문으로 옮겨 『教會禱文』이라는 이름으로 1879년에 다시 펴내기도 하였다.³¹⁾ 이 책에 들어 있는 니케아 신경(尼吉亞信經)은 다음과 같이 마리아를 ‘동정녀’(童貞女)라고 부른다.

聖子爲要拯救我等世人，從天降臨，爲聖靈感動之童貞女馬利亞所生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회에서 1879년에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에서도 비슷했던 듯하다. 성경은 아니지만 기도서에 들어 있는 니케아신경에서 이렇게 ‘동정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국성공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처녀좌’(处女座)라고 말한다. 또한 汉英词典 부분 829쪽의 ‘정’(贞, zhēn) 항목은 ‘loyal, faithful, (of woman) chastity or virginity’라고 설명한다. ‘정녀’(贞女)라는 항목은 없지만 이 용어로 ‘처녀성’(virginity)을 말한다.

28) 於一千六百有三年前歲次庚申當漢朝哀帝元壽二年冬至後三日擇貞女爲母無所交感託胎降生名號爲耶蘇 耶蘇卽爲球世也 (天主實義 下卷 六十九). 여기서 ‘정녀를 어머니로 택하여’(擇貞女爲母)라는 표현에서 ‘정녀’(貞女)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테오 리치 (利瑪竇), 『천주실의(天主實義)』, 송영배 외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564를 보라. 그리고 423을 참조하라.

29) James Legge, *The Nestorian Monument of Hsi-An Fu in Shen-Hsi, China* (London: Trübner & Co., 1888), 6. ‘神天宣慶, 室女誕聖於大辰, 景宿告祥, 波斯觀耀以來貢’(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실녀(室女)가 유다에서 거룩한 분을 낳았다. 밝은 별이 이 사실을 알렸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밝은 것을 보고 와서 예물을 드렸다.) 부분에서 밑줄 친 ‘실녀’(室女)라는 용어를 가리킨다.

30) 『教會禱文』, 包爾騰, 施約瑟 譯 (京都: 美華書館, 1872). 이 책의 속표지에는 “The Book of Common Prayer, translated Mandarin. By the Reverend J. S. Burdon, Church Missionary Society, and the Rev. S. I. J. Schereschewsky, American Episcopal Mission. Peking - 1872”라고 되어 있다.

31) 『教會禱文』, 包爾騰 譯 (香港: 聖保羅書院, 1879). 이 책의 속표지에는 “The Common Prayer of the Church of England translated into Chinese by J. S. Burdon”으로 표기되어 있다.

3. 일어 성서의 ‘처녀’(오토메)와 ‘동정녀’

일어 성서의 경우는 어떨까? 최초의 일어 완역본 『메이지역』(1887)³²⁾이 마태복음에서 ‘처녀’(處女)라고 번역한다. 1888년에 개신교회에서 펴낸 『찬미가』³³⁾ 속의 사도신경에도 ‘처녀’로 되어 있다. 1895년에 일본 가톨릭 교회에서 펴낸 『聖福音書』³⁴⁾ 또한 ‘처녀’(處女)로 옮긴다. 1901년 일본정교회에서 펴낸 『新約』³⁵⁾은 ‘동녀’(童女)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일본 가톨릭 교회 선교사 에밀 라게(Emile Raguet, 일본 이름 라게, 1852-1929)가 번역한 『新約聖書』³⁶⁾는 ‘동정녀’(童貞女)로 번역한다. 이 신약성경은 1910년에 나왔다.³⁷⁾ 한글 완역성경 『구역』(1911)보다 한 해 빨리 나온 일본 가톨릭교회의 신약전서이다.³⁸⁾

『대정역』(1925)은 다시 ‘처녀’(處女)로 번역한다. 일본 개신교회가 많이 읽은 『구어역』(1955)은 ‘처녀’라는 뜻의 ‘오토메’(おとめ)로 번역한다. 다만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읽는 『신공동역』(1987)도 마찬가지로 한자말과 함께 표기하지 않고 히라가나로만 표기한다. 특이하게도 2004년 일본의 암파서점(岩波書店)에서 펴낸 『암파서점역』은 ‘乙女’(을녀)라고 본문에 표기하고 히라가나로는 ‘おとめ’라고 표기한다. 이보다 앞서 1978년에 일본 가톨릭교회와 개

32) 『新約聖書 詩篇附』, 文語訳 (東京: 日本聖書協會, 2000).

33) 讚美歌委員 編, 『讚美歌』 (1888 [明治21年]), 297.

34) 『聖福音書 上』, 高橋五郎 譯 (東京: 天主教會, 1895 [明治28年]).

35) 『我主イイススハリストスノ新約』, 日本正教會 譯 (東京: 正教會本會, 1901).

36) 『我主イエズスキリストの新約聖書』, エ, ラゲ 譯 (鹿児島: 公教會, 1910 [明治43年]) (라게역).

37) Doron B. Cohen,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dO, (Leiden; Boston: Brill, 2013), 40을 참조하라. 이 성경에 대한 설명으로 海老澤 有道, 『日本の聖書. 聖書和訳の歴史』, 新訂増補版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1), 359를 보라.

38) 그런데 1891년에 이미 ‘동정녀’로 번역한 책이 있다. 러시아인 이완트후 그리고 프라토 노후가 쓴 『西教一斑』(서교일반)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 ‘聖童貞女マリヤ’(성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ア, ム, イウンツォフ, プラトノフ, 『西教一斑』, 吉田葩韋勒 譯 (東京: 正教會編輯局, 1891 [明治24年]), 34를 보라. 또한 フェオカファノ 師編, 『主ハリストス 一代記』(全), 石川 喜三郎 譯 (東京: 正教會編輯局, 1902 [明治35年]), 7-8도 보라. 일본 정교회의 이 서적도 ‘聖童貞女’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 앞에 ‘聖’(성) 자를 붙인 것이 특이하다. 아마도 일본 정교회의 관습인 듯하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나온 일본 가톨릭교회의 찬송가에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童貞女に對す)라는 제목이 등장한다. 이 책은 라게역을 번역한 에밀 라게(Emile Raguet)가 편집한 책이다. エ, ラゲ 編, 『公教會羅甸歌集』, (東京: 三才社・昌平館, 1903 [明治36年]), 157을 보라. ‘童貞女’(동정녀)라는 말에 ‘どうていぢよ’라는 히라가나가 붙어 있다.

신교회가 함께 번역하여 펴낸 『신약성서공동역』³⁹⁾도 마찬가지로 ‘乙女’(을녀)라고 본문에 표기하고 히라가나로 ‘おとめ’라고 옆에 붙여놓았다.

이렇게 일어 성서의 경우 신약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處女(おとめ)’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사정은 구약도 마찬가지이다. 『대정역』(1925)과 『구어역』(1955)과 『신공동역』(1987) 모두 ‘おとめ’로 번역한다. 『암파서점역』(2004)까지도 이렇게 번역한다. 따라서 일어 성서의 경우는 처음부터 신약과 구약을 모두 통일시켜 ‘처녀’로 읽어온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 하지만 일본 가톨릭교회는 ‘동정녀’로 읽는 전통도 있다. 『라게역』(1910)이다. 이 성경이 한글 완역성경 『구역』(1911)보다 한 해 빠르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處女 (おとめ)	『메이지역』, 『대정역』
童女	『정교회역』
童貞女	『라게역』
おとめ	『구어역』, 『신공동역』
乙女 (おとめ)	『신약성서공동역』, 『암파서점역』

일어 성서는 ‘처녀’(處女)와 ‘을녀’(乙女)를 함께 사용하면서 히라가나로는 모두 ‘오토메’(おとめ)라고 읽는다. 일본어의 경우 ‘처녀’(處女)는 처녀성에 초점을 둔 표현인 반면, ‘을녀’(乙女)는 단지 ‘소녀’나 ‘젊은 여자’라는 뜻을 지닌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⁰⁾ 곧 『암파서점역』(2004)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교리와는 상관없이 그리스어 ‘파르테노스’의 뜻 가운데에서 ‘젊은 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번역한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은 ‘오토메(おとめ, 處女) 마리아에게서 나시어’라는 표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일어 성서 『메이지역』(1887)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어 성서 역시 초기에는 한문성경의 영향으로 ‘童女(どうぢよ)’(『정교회역』)라고 번역하기도 했다.⁴¹⁾ 특이한 것은 일본 가톨릭

39) 일본어 『신약성서공동역』(1978)은 신약만 나왔고, 1987년에 『신공동역』이 출간되었다. Katsuomi Shimasak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별책) 24(2009. 04.), 116-126; 카추오미 쉬마사키, “일본 성서 번역의 역사”, 이형원 역, 『성경원문연구』(별책) 24(2009), 365-376 참고.

40) 이 말의 차이를 알려준 이상훈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일본 동포 3세로 연세대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이상훈 박사는 현대 일본인들이 ‘오토메’(おとめ)라는 말을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처녀’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2017년 5월 31일).

41) 실제로 미드허스트(W. Medhurst)가 1830년에 쓴 일어-영어 영어-일어 용어록에서는

교회가 ‘童貞女(どうていぢよ)’(『라게역』)라고 옮겼다는 점이다. 1987년에 나온 『신공동역』이 ‘처녀’라고 번역하여 이 전통을 버리기는 했지만 일본 가톨릭교회의 사도신경에서는 여전히 ‘동정녀’라고 고백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다.

물론 ‘처녀’로 읽는 전통은 일본 개신교회과 가톨릭교회의 다른 사도신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대별로 나온 사도신경이 모두 ‘처녀’(處女)라고 표기하고 히라가나로 ‘오토메’(おとめ)를 붙인다.

4. 한문성경 『마쉬만-라싸르역』(1822)의 ‘처녀’

이렇게 놓고 보면 한글성경 『개역개정』(2005)의 ‘처녀’(處女)라는 용어는 일본어 성서와 같다. 하지만 한문성경 『대표본 신약』(1852)이 이미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1822년에 나온 한문성경 『마쉬만-라싸르역』이 구약 이사야서(7:14)에서 ‘처녀’(處女)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마쉬만-라싸르역』(1822)의 용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²⁾

따라서 한글성경 『개역개정』(2005)의 ‘처녀’라는 용어는 최초의 완역 한문성경 『마쉬만-라싸르역』(1822)에서 비롯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한글 『공동』(1977)과 『새번역』(2004)과 『성경』(2005)의 구약 이사야서(7:14)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물론 세 성경이 모두 난하주에 ‘젊은 여자’로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한다.

5. 구한말 조선어 사전 속의 ‘동녀’와 ‘처녀’

19세기 말에 조선으로 파송되어 활동했던 가톨릭교회 신부들이 펴낸

‘Virgin’을 ‘Do-oo ni-yo’(童女)의 대응어로 제시한다. W. H. Medhurst, *An English and Japanese and Japanese and English Vocabulary* (Batavia, 1830), 17. 그런데 헵번(J. C. Hepburn)이 1867년에 펴낸 일어-영어 사전에는 일어 ‘Dō-niyo’를 ‘동녀’(童女)라고 표기하고 ‘a young girl’로 번역한다. J. C. Hepburn, *A Japanese and English Dictionary: with an English and Japanese Index* (London: Trübner & Co., 1867), 56. 따라서 19세기에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사이에서 ‘처녀’와 ‘동녀’의 뜻이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그런데 츠다센(津田仙) 외 2인이 함께 번역하여 1879년에 펴낸 『英華和譯字典』(1574쪽)은 ‘Virgin’이 명사로 쓰일 경우 그 대응어를 ‘閨女, 處女, 貞女, 童女’로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Virgin’이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貞, 童貞, 童身的’이라는 대응어로 설명한다. 『英華和譯字典』 坤, 津田仙, 柳沢信大, 大井鎌吉 譯 (東京: 山内輿, 1879 [明治12年]), 1574.

42) 물론 이 성경이 신약 마태복음(1:23)에서는 ‘동신자’(童身者)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불즈던』(1880)⁴³⁾을 보면 ‘동녀’(童女)라는 표제어만 나올 뿐 ‘동정녀’(童貞女)라는 표제어는 없다. ‘동정’(童貞)이라는 표제어만 있을 뿐이다. 이 사전은 ‘동녀’(童女)와 ‘처녀’(處女) 그리고 ‘동정’(童貞)을 이렇게 설명한다.

동녀, Tong-nye. 童女. Vierge, femme qui ne s'est jamais mariée.(490쪽)

동정. Tong-Tjyeng, -i. 童貞. Vierge, virginité.(492쪽)

처녀, Tchye-nye. 處女. Petite fille; fille vers l'âge de 12 à 17 ans. jeune fille, jeune personne.(597쪽)

이렇게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동녀’(童女)와 ‘처녀’(處女)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만 ‘동정녀’라는 말이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펴낸 여러 한영사전(韓英事典)을 찾아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의 한영사전을 보면 이렇다.⁴⁴⁾

처녀, 處女, A young unmarried lady, a young woman (from twelve to seventeen yrs.)’

동정, 童貞, Virginité, celibacy.

이 사전에도 ‘처녀’라는 항목은 있지만 ‘동정녀’라는 항목은 없다. 다만 ‘동정’이라는 항목만 등장한다. 이 사전이 ‘처녀’(處女)를 설명한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한불즈던』(1880)을 베낀 듯한 인상을 받는다. 설명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12살에서 17살까지의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펴낸 『한영즈던』(1890)도 영어 ‘Virgin’을 ‘처녀, 규슈, 아가씨’로 설명하는 것은⁴⁵⁾ 1800년대 말 당시 조선말 ‘처녀’(처녀)가 어떤 용어로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3) Les Missionnaires de Corée, ed., 『한불즈던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1880), 490, 492, 597.

44)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185, 157.

45)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Student Editio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td., 1890), 335.

6. 「대한크리스도인 회보」(1898)와 『찬송가』(1909)의 ‘동정녀’와 ‘처녀’

그런데 최초의 한글 신약 『예수성교전서』(1887)도 ‘처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의 『신약성서마태전』(1884)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900년과 1904년에 나온 『구역 신약』의 마태복음 또한 ‘처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다가 1906년에 이 번역을 개정한 『구역 신약』에 와서 ‘처녀’를 ‘동정녀’로 바꾸어 읽는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아마도 당시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정녀’라는 표현의 영향이 아닐까 짐작한다. 그런데 1898년 12월 28일자 「대한크리스도인 회보」의 ‘성탄일경축’이라는 글에는 정동교회에서 24일 밤에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찬미가를 불렀는데 그 제목이 ‘동정녀에게 탄싱하심’(동정녀에게 탄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⁶⁾

…형데 송은용씨는 대한말노 권설하되 각각 그나라 풍속의 이상함을
말씀 하고 그후에 비지학당 학도들만 찬미가(동정녀에게 탄싱하심)를 특
별히 영어로 노래하고…

정동제일교회의 담임목사 아펜젤러가 쓴 것으로 짐작되는 이 글이 ‘동정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곧 당시 찬송가에서 ‘동정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성공회에서 펴낸 『조만민광』에도 ‘동정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책은 ‘성모령보’라는 항목(4쪽)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⁷⁾

나즈릇이라 하는 고을에 가서 동정녀 마리아 다위 (다위는 그 전에 유
더야 국 다스린 넷 님군의 일흠이라) 겨레 요습의 빙문하신 바 자의게
림하시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기하였다.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문장은 할주(割註)로 당시 한문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습이다. 특별히 쉘레쉴브스키 주교가 번역한 쉬운 문리역(『시주교역』, 1902)에서 흔하게

46) “성탄일경축”, 「대한크리스도인 회보」, 2:52 (1898.12.28.), 2.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H. G. Appenzeller, ed.)

47) 트롤로프(조마가: Mark Napier Trollope), 『조만민광』 (한양: 한양락동영국성교회, 1894.), 4.

찾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글에서 마리아를 가리켜 ‘동정녀’(동정녀)라고 말한다. 이 책은 1894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19세기 말에 조선에서 이미 ‘동정녀’라는 표현이 ‘처녀’라는 말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1909년에 나온 『찬송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찬송가에는 성탄을 축하하는 12개의 찬송(61장-71장)이 들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찬송이 ‘동정녀’와 ‘처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세상에 주피셔 강심홀 쟈에
 춤신과 춤사람이 되시라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스니 (70장 3절)

상대 독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시니
 사름 몸을 넘었네
 인싱들을 놓히며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니
 왕씨 치흐옵세다 (62장 3절)

이렇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2년에 영국성공회가 조선의 교인들을 위해서 펴낸 『스도문』에는 사도신경이 ‘종도신경’(宗徒信經)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다.⁴⁸⁾ 이 기도문은 ‘동정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앞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一 나 - 텃디를 내신 전능 텃주 성부를 밋으며
 二 그 외아들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를 밋으며
 三 성신을 인히야 강잉히샤 동정녀 마리아의게 나심을 밋으며

이렇게 마리아를 ‘동정녀’(童貞女)라고 고백한다. 아마도 일본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이 고백이 굳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8) 具世實, 『私禱文』, 悅話堂 韓國近現代書籍 復刻叢書 (과주: 悅話堂, 2011; 원출판년 1932), 2.

7. 맺는 말

1906년 『구약 신약』의 번역 팀은 ‘처녀’라는 용어를 ‘동정녀’라는 말로 바꾸어 마태복음(1:23)의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1911년에 구약과 함께 한글 『구약』을 펴낼 때에도 이 용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채택되었다. 그러다가 1938년의 『성경개역』에 와서 ‘처녀’로 바뀐다. 그 시작은 1925년에 나온 『신역신구약전서』인 듯하다. 1919년에 나온 『펜 워역』은 ‘새악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나온 『새즈른 성경』(최의원 역)은 ‘아가씨’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한글 『구약』(1911)이 ‘동정녀’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번역 팀의 용어 선호도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곧 중국 성공회에서 나온 『教會禱文』(1872)의 영향이든지 아니면 성공회가 펴낸 『조만민광』(1894)의 영향일 수도 있다. 당시 ‘동정녀’와 ‘처녀’라는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⁴⁹⁾

<주제어>(Keywords)

동정녀, 처녀, 마태복음 1:23, 이사야 7:14, 한글성경, 한문성경, 중문성경, 일어 성서.

Dong-Jung-Nyeo (virgin), Cheo-Nyeo (maiden), Matthew 1:23, Isaiah 7:14,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Bibles in Old and Modern Chines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Bible.

(투고 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49) 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인용한 중국어 성경 해석을 도와주신 분은 김상기 박사와 소은희 교수이다. 중국어 자료와 일본어 자료를 구해주신 분은 이해원 박사와 이상훈 박사 부부이다. 또한 일본에서 자료를 사진 찍어 보내주신 이상훈 박사의 모친 오수혜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참고문헌>(References)

- 『舊新約聖書 文理』, 上海: 聖書公會, 1933; 원출판년 1852 신약, 1854 성경전서.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33) (대표본)
- 『舊新約全書』, 福州: 大美國聖經會, 1896; 원출판년 1859 신약, 1864. (*Classical Bible,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1896) (브리지만-컬벗슨역)
- 『舊約聖書 III』, 机上版, 預言書, 舊約聖書翻譯委員會 訳, 東京: 岩波書店, 2004.
(이와나미쇼텐역 구약)
- 『舊約全書』, 京都: 美華書院, 1874. (북경관화역 구약)
- 『四史聖經: 스스성경』, 한기근, 손성재 역, 성서활판사, 1910. (사사성경)
- 『聖福音書 上』, 高橋五郎 譯, 東京: 天主教會, 1895 (明治28年).
- 『聖書』, 口語訳, 東京: 日本聖書協會, 1991; 원출판년 1954 신약, 1955 구약.
(Bible Coll. Japanese) (구어역)
- 『聖書』, 新共同訳, 舊約聖書續編つき, 引照つき, 東京: 日本聖書協會, 1993; 원출판년 1987. (신공동역)
- 『圣经』, 思高圣经学会, 中国天主教主教团 准, 南京: 爱德印刷有限公司, 2009;
원출판년 1968. (사고성경 = 프란치스코회 성경)
- 『新舊約聖經 串珠 淺文理 上帝』, 上海: 美國聖經會, 1925; 원출판년 1902. (*Easy Wenli Reference Bible, 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Term Shangti*, Shanghai: American Bible Society, 1925) (시주교역)
- 『新舊約全書』, 聖經 和合本 (上帝版), 香港: 香港聖經公會, 1961; 원출판년 1919.
(*The Holy Bible, Chinese Union Version [Shangti Edition]*) (화합본)
- 『新約聖書』, 机上版, 新約聖書翻譯委員會 訳, 東京: 岩波書店, 2004. (이와나미쇼텐역 신약)
- 『新約聖書 共同訳』, 東京: 日本聖書協會, 1978.
- 『新約聖書 詩篇附』, 文語訳, 東京: 日本聖書協會, 2000.
- 『新約全書』, J. Lassar and J. Marshman, trans., Serampore, 1822. (*The New Testament in Chinese: Printed at Serampore, with metallic, moveable characters*) (마쉬만-라샤르역)
- 『新約全書』, 江蘇松江: 上海墨海書館, 1856. (남경관화역)
- 『新約全書』, 中西字, 上海: 美華書院, 1885; 원출판년 1872. (*The New Testament in English and Madarin*,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85) (북경관화역 신약)
- 『新約全書』, 楊格非 譯, 漢鎮: 英漢書館, 1885. (양격비역, 그리피스 존 역)
- 『新約全書』, 東京: 日本東京秀英舍, 1898. (*The New Testament in Plain Wenli*,

- Rt. Rev. S. I. J. Schereschewsky (Formerly Missionary Bishop in Shanghai of the American Episcopal Church), trans., Tokyo: Shueisha, 1898) (시주교역 신약)
- 성서번역학회, 『신약전서』, 도쿄: [상임성서실행위원회], 1906. (구역 신약)
- 『新譯新舊約全書』, 奇一, 李源謨 역, 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 『神天聖書』, 載舊約遺詔書 兼 新遺詔書 俱從本文譯述, 馬六甲: 英華書院, 1823; 원출판년 1814 신약. (모리슨역)
- 『我主イエズスキリストの新約聖書』, エ, ラゲ譯, 鹿兒島: 公教會, 1910 (明治 43年). (라게역)
- 『我主イススハリストスノ新約』, 日本正教會譯, 東京: 正教會本會, 1901.
- Aland, Babara, et al., hrsg.,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BasisBibel: Das Neue Testament und die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BasisBibel)
-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Editio Tertia Emenda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불가타역)
- Bücher der Kündigung: Verdeutsch von Martin Buber gemeinsam mit Franz Rosenzweig*, Die Schrift 3, 8. Auflage der neubearbeiteten Ausgabe von 1958,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부버역)
-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des Neuen Testaments*, 18. Auflage,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82. (ZB, 취리히성경)
-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2nd ed.,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NJPS)
- La Bible: Ancien et Nouveau Testament*, Nouvelle édition révisée 1997,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 1997. (BFC)
- The Holy Bible Containing Old and New Testaments in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org. ed. 1611. (KJV)
- 『经文汇编』, 上海: 中国基督教协会, 1993.
- 『教會禱文』, 包爾騰, 施約瑟譯, 京都: 美華書館, 1872. (*The Book of Common Prayer*, translated into Mandarin. By the Reverend J. S. Burdon, Church Missionary Society, and the Rev. S.I.J. Schereschewsky, American Episcopal Mission.)
- 『教會禱文』, 包爾騰譯, 香港: 聖保羅書院, 1879.
- 廣剛(히로 다카시), “李樹廷譯『마가전』의 底本과 翻譯文의 性格”, 「국어사연구」 4 (2004), 173-233.

- 具世實, 『私禱文』, 悅話堂 韓國近現代書籍 復刻叢書, 靑州: 悅話堂, 2011; 원출판년 1932.
- 金學主 譯著,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 서울: 明文堂, 2002.
- 馬禮遜 (Robert Morrison), 『華英字典』 2. (影印版), 馬禮遜文集, 上海: 大象出版社, 2007; 원출판년 1822.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 마테오 리치 (利瑪竇), 『천주실의(天主實義)』, 송영배 외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 閔德孝 編, 『主敎要旨』, 京城: 京城府明治町天主敎會, 1932 (昭和7年).
- “성탄일경축”, 「대한크리스도인 회보」, 2:52 (1898.12.28.), 2.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H. G. Appenzeller, ed.)
- 申葳 責任編輯, 『外研社 精編 英漢漢英詞典』, 大字本, 北京: 外語敎學與研究出版社, 2010. (*FLTRP Concise English-Chinese Chinese-English Dictionary*)
- 『英華和譯字典』 坤, 津田仙, 柳沢信大, 大井鎌吉 譯, 東京: 山内轅, 明治12年 (1879). (*A Dictionary of the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s, with the Japanese Pronunciation*, Vol. II. 1st ed.)
- 이환진 역주,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풀어 읽는 이사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재한복음주의선교부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 편, 『찬송가』, 敬城: 재한복음주의선교부통합공의회, 1909. (*The Hymnal of 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 エ, ラゲ 編, 『公敎會羅甸歌集』, 東京: 三才社·昌平館, 1903 (明治36年).
- ア, ム, イウンツォフ, プラトノフ, 『西敎一斑』, 吉田葩韋勒 譯, 東京: 正敎會編輯局, 1891 (明治24年).
- フェオカファノ 師編, 『主ハリストス 一代記』(全), 石川 喜三郎 譯, 東京: 正敎會編輯局, 1902 (明治35年).
- 讚美歌委員 編, 『讚美歌』, 1888 (明治21年).
- 트롤로프(조마가: Trollope, Mark Napier), 『照萬民光』, 漢陽: 漢陽駱洞英國聖敎會, 1894. (조만민광)
- 트롤로프(조마가: Trollope, Mark Napier), 『조만민광』, 漢陽: 漢陽락동영국성교회, 1894.
- 황예렘, “인도에서 이루어진 한문 성서의 번역 · 출판 배경과 경위”, 「성경원문연구」 38 (2016), 159-186.
- 海老澤 有道, 『日本の聖書. 聖書和訳の歴史』, 新訂增補版,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1.
- Brockelmann, Carolo, *Lexicon Syriacum*, Editio Secunda aucta et Emendata, Halis

- Saxonum: Sumptibus Max Niemeyer, 1928.
- Cohen, Doron B.,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dO, Leiden; Boston: Brill, 2013.
- Cohen, Menachem, ed., *Mikra'ot Gedolot 'Haketer': A Revised and Augmented Scientific Edition of 'Mikra'ot Gedolot' Based on the Aleppo Codex and Early Medieval MSS: Isaiah*, Ramat-Gan: Bar Ilan University, 2003. (히브리어)
- Hepburn, J. C., *A Japanese and English Dictionary: with an English and Japanese Index*, London: Trübner & Co., 1867.
- Jastrow, Marcus,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92; org. ed. 1903.
- Legge, James, *The Nestorian Monument of Hsî-An Fû in Shen-Hsî, China*, London: Trübner & Co., 1888.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ed., 『한불즈던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1880.
- Medhurst, W. H., *An English and Japanese and Japanese and English Vocabulary*, Batavia, 1830.
- Muraoka, Takamitsu,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Chiefly of the Pentateuch and the Twelve Prophets*, Louvain; Paris; Dudley, MA: Peeters, 2002.
- Muraoka, Takamitsu,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 Scott, James,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K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 Shimasaki, Katsuom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별책) 24 (2009), 116-126; 카추오미 쉬마사키, “일본 성서 번역의 역사”, 이형원 역, 「성경원문연구」(별책) 24 (2009), 365-376.
- Sokoloff, Michael, *A Syriac Lexicon: A Translation from the Latin, Correction, Expansion, and Update of C. Brockelmann's Lexicon Syriacum*, Winona Lake, IN; Piscataway, NJ: Eisenbrauns; Gorgias Press, 2009.
- Spillett, Hubert W., ed., *A Catalogue of Scriptures in the Language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75.
- The Missionaries of the Church of England in Corea, ed., *Lumen Ad Revelationem Gentium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Seoul: The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5.
- Underwood, Horace Grant, 『韓英字典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Student Editio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td., 1890.

<Abstract>

**Where Does the Korean Term
Dong-Jeung-Nyeo (동정녀) or *Cheo-Nyeo* (처녀)
in Matthew 1:23 Come From?**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Biblical Greek *parthenos* (παρθένος) in Matthew 1:23 is rendered as either *Dong-Jeung-Nyeo* (동정녀) or *Cheo-Nyeo* (처녀)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like the Older Version (1906, 『구역 신약』), the Revised Version (1938, 『성경개역』), and the Common Translation (1977, 『공동』), and etc. The two Korean words mean *virgin* or *maiden*. As we know, Matthew 1:23 in the Greek New Testament quotes LXX Isaiah 7:14, which has the Hebrew term *almah* (עלמה), presumably referring to a young woman.

The Korean term *Cheo-Nyeo* (처녀) seems to come from the Old Chinese Marshman and Lassar's Version (1822), which is followed by later Chinese versions of the Bible including Delegates' (1852) and Bridgman and Culbertson's (1863) versions. But most of the Chinese versions read the Greek word as 童女, even though the Contemporary Chinese Bible (『当代译本』) issued in 2011 has the word 童贞女 in Isaiah 7:14 and Matthew 1:23.

In contrast, Japanese Bibles have words like 處女 and 乙女 in Matthew 1:23. Both words are pronounced *O-to-me* (おとめ) nowadays. The Japanese Colloquial Version (1955) and the New Common Translation (1987) do not use Chinese characters but Japanese Hiragana script in the translated text. Interestingly enough, only the Japanese New Testament (1911) translated by the Dutch missionary Emile Raquet reads the Greek *parthenos* as 童贞女.

The Common Prayer of the Church of England translated into Chinese by J. S. Burdon entitled 『教會禱文』 (1872) has the word 童贞女 (동정녀) in a section of the Apostles' Creed. In addition, the Anglican Church in Korea issued a book called 『조만민광』 (照萬民光) in 1894. The latter book, a translation of the Anglican Church's shortened New Testament, *Lumen Ad Revelationem Gentium*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also has 동정녀 (童贞女) within the creed mentioned above.

We can therefore assume that the Korean term 동정녀 (童貞女) might have come from the Chinese 『教會禱文』 (1872) or the Korean 『조만민광』 (1894) in that its use has begun to appear in the New Testament (1906) of the Korean Older Version among the Korean Versions of the Bible.